



▲「대아이데아」대상의 거점교육은 시킬 수 없다. 지난8월4일 광주 Y·M·C·A회관에서 열린 「전교조 탄압 범시민 결기대회」중

(4면에 이어서)
「전대대」측 지니, 입이 밝혀져 정부측과 제도인문학의 조약이 드러났다.

대아이데아는 지난 7월15일 1차전국위원회 2천여명의 학생들과 7월20일 2차전국위원회 1천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우리 학교」라는 한자축이다. 정경은 없다. 학교 공인하여 학생들이 농성을 해산 하였다. 그러다가 25일 도시에 강제하여 모래리교와 학생 1천여명이 모여 농성을 시작 하였고 대아이데아 정경위원장 학생들에게 나와 「내가 있는 한 정경은 없다. 소신껏 행동하라.」고 공언을 하여 학생들은 농성을 해산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26일 대아이데아 정경위원은 「우리 학교」를 작위권지키라는 행위를 저지르라고 말했다. 또한 정경위원의 황모교사는 공무원인 아버지를 직장상사가 협박하여 돈을 하게 함으로써 이렇 수 없게 탈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와중에 정경위원의 가족, 전 지남을 교묘히 이용하여 사태도 비뚤어질 상황이다.

전남대부속서 강교도등학교의 경우 교사, 학생은 물론 재단, 학교장에게 가세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주된 3명을 포함해 노조가입교사 46명이 동맹투쟁 전교조 사무부를 벌여나가고 있다. 이 학교는 총학생회가 직접제로 선출, 설립 당시의 이념에 따른 윤바른 가치관 전담을 전교조에서 가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직접 수입을 가로지르려는 이 학교 전신은 교장은 전교조가 결성될 당시 「지금같이 말로 참교육 실현을 위한 노조를 결성할 시기이다. 어떠한 탄압이 오더라도 이념정치는 마저까지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난 8월경 전교조관련 교사정계지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노조위원은 정계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제정치를 잃게될것다 협박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사학재단의 경우 6천~9천만원정도를 정부지출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중단하면 부채가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는 현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공세로 불이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전교조에 대한 당국의 탄압에 대하여 전교조도 단식수업, 분회별 철야농성, 탄압에 대한 규탄대회 등 여러가지 대응을 전개해 왔으며, 전교조 정경에 대한 학생, 학부모, 졸업생의 항의가 집단자퇴서 제출, 전교조 지지 동맹결성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광주지역 2만5천여 학생들은 연일 전대대 5-18광장에서 연 합시위를 가진대 이어 전날의 기차중고, 서울의 구로고등학교들의 시위가 가두전출장으로

계속한 마음으로 선생님을 지키려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싫어 저는 전교조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직권면직을 열광적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교조에 있었던 전교조 탄압에 대한 분회별 내용을 각 분회별로 발표 하였다. 발표의 중간중간 「우리는 살아있다 참교육은 이룩된다.」 「전교조는 경이하여 참교육 이룩하자.」 「입시교육 철폐하고 전인교육 이룩하자.」는 구호와 함께 「전교조가,」 「중국이 내가있다.」 「단결 투쟁가,」 등이 불려져 갔다.

죽호학원 분회는 죽호학원 산하 학교고, 금곡화학교고, 중앙학교고, 중앙여중학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광주의 사학재단은 여러개의 학교를 거느리고 있는데 죽호학원도 그러한 재단중의 하나이다. 죽호학원의 교사중 1백30명이나 노조에 가입한 정도로 전교조 지지표명을 확실한 이곳 분회에도 탄압이 들어와 29일 순문제교사가 직권면직을 당하였고 1백29명에게는 개별통지서를 보내 31일 오후까지, 탄피서를 안내한 정경위에 회부 하였다고 재단측은 입장을 하였다.

이해 학생들은 오전 6시30분부터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1백여명의 학생들은 무기한 단식

하여 항의중고, 동아여중고, 송림 연합, 대동·석산고등 20여개 학교 학생들이 농성중이며 40여개학교에서는 28일부턴 교사들이 단식·철야농성중이다.

한편, 광주YMCA에서는 8월22일 오전10시에 「광주·전남 참교육 학부모회」, 소속배임의 학부모가 모여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학원·파면동의 전교조 교사단임이 계속되면 수업료, 학비, 자퇴서 제출, 동교자부담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광주·전남 참교육 학부모회」는 지난 7월22일 광주지역 10여개 학교(재단은 1개학교로 포함)와 전남지역 4개학교 학부모회가 모여 결성되었다. 학부모회는 「광주 부패의전 교육이 바뀌길 원했다. 전교조 선생님을 그들이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을 생겼습니다. 현대 전 선생님과 선생님을 지키겠다는 학생들을 탄압하는 것을 보고 부모들이 나서서 우리의 아이들과 선생님을 보호자는 입장에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학부모회는 시교육위원회와 도교육위원회에 정경항의 방반, 학교별 지원항의 활동을 해 왔으며 계속적인 분회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아여중고는 7월28일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동참하여 7월31일 4백34명의 자퇴서를 수합하였고, 8월1일에는 4백67명의 2차분 자퇴

노조가 생겨난 이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79.2%가 대답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교사 가족을 움직이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족회는 1백20명의 회원으로 7월5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가족회의 구체적인 활동은 자퇴농성, 교사·이사와에 대한 항의발문들을 주로 한다. 구수원 광주지부장 오종범(전남여고 52)교사의 부인은 가족회의 어려움에 대해 「생활상으로는 지부에서 생활을 도와주어 커다란 어려움이 없지만 마음고생이 큼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는 선생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많은 위안을 얻고있다.」라고 말한다.

문교부는 7월11일 이래 계속적으로 전교조 가입교사들에게 탈퇴 할 것을 종용하면서 「재교사가 얼마되지 않으니가 탈퇴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선 파면, 해임하고 그자리에 미발령교사를 대체 임용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이에 「전남 미발령 교사협의회(이하 전미협)」, 박진실 간사(25)는 「문교부의 이러한 발령지체를 발표로 약속을 행하여 분노를 느낀다.」 「전미협은 지난7월13일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가입에 따른 파면등으로 생기는 자리에 미발령교사가 임용되는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문교부를 통한 전교조 지지도 광주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고 있다.

문교부의 주요활동은 지지·적대방문, 전교조 지지문서발송 등, 신문에 지지 성명서 게재, 성금모금을 위한 일일집행동의 출연 제책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8월4일 명동성당에서 20여개 교동동들이 모여 「서울지역 동맹대학 연합」을 구성한 것을 계기로 동맹들의 역이 확대되어 전일이다.

지난 7월 명동성당 단식농성 때를 같이하여 대구·경북지역 전교조 가입교사 70명은 재명명 동서문관에서 8일동안 「전교조 탄압 규탄 농성」을 벌여 교수도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

교조 사수에는 예외일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폭우에 집들고도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을 반세기 추구해온 민족교육, 반세기 추구해온 민족교육, 인간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화 교육입니다. 인간소외가 나타나는 것이 노동자 친화시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교조의 합법화에서부터 전지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라는 광주지부 홍보부장 박재성(대동고 34)교사의 말처럼 전교조의 「참교육」은 교사들 노동자 자각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당당한 학교앞에 선

호상함을 마련했는데 부유에 모든 걸 걸고 말았으며, 뿐만아니라 전교조 교사활동으로 인해 해임될 염려에 두고 있는 처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명동 단식농성에 참가 하였다.

서울 구로고등학교 이재현(영이)교사는 노조가입교사들로 부터 동료에게 갖는 특이한 권유를 받았다. 이재현교사의 아버지는 병원전담결과 3개월밖에 살수 없다는 암진단을 받고 있던, 당국의 노조가입교사에 대한 은감법, 최후공작속에서 최사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



▲광주 죽호학원(중앙여중고, 금곡고, 금곡화학교) 학생들이 재단측의 부당징계에 항의하며 이사장실을 점거·농성하고 있다. 뒤에 보이는 피로 쓴 플래카드.

기.보통하는 교육의 살 길은 없다. 노동자 지식인 것을 지향할 수 있는 학교, 경자 노동자가 되겠다고 정경위원장에게 써 넣는 아이에게 민족의 미래를 건다.민 교육은 노동자지식교육이어야 한다. 재금사회의 어떻게 노동자가 자랄 수 있겠는가.는 교사들만이라도 노동의 고리함을 해설하고, 노동자 지식을 전대하지 말아야 한다. 도대체 사장이나 반사, 검사, 의사가 되겠다는 아이들만 키워서 민족의 장래를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수운교실에서 손바

거창중고생들

거창중고의 경우, 전교조 거창지부장 윤진구(사북)교사의 파면 철회를 요구하던 이 학교 학생들은 농성을 해산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26일 대아이데아 정경위원은 「우리 학교」를 작위권지키라는 행위를 저지르라고 말했다. 또한 정경위원의 황모교사는 공무원인 아버지를 직장상사가 협박하여 돈을 하게 함으로써 이렇 수 없게 탈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와중에 정경위원의 가족, 전 지남을 교묘히 이용하여 사태도 비뚤어질 상황이다.

전남대부속서 강교도등학교의 경우 교사, 학생은 물론 재단, 학교장에게 가세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주된 3명을 포함해 노조가입교사 46명이 동맹투쟁 전교조 사무부를 벌여나가고 있다. 이 학교는 총학생회가 직접제로 선출, 설립 당시의 이념에 따른 윤바른 가치관 전담을 전교조에서 가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직접 수입을 가로지르려는 이 학교 전신은 교장은 전교조가 결성될 당시 「지금같이 말로 참교육 실현을 위한 노조를 결성할 시기이다. 어떠한 탄압이 오더라도 이념정치는 마저까지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난 8월경 전교조관련 교사정계지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노조위원은 정계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제정치를 잃게될것다 협박하고



교사는 교원노조 건설로, 학생은 자주적학생회 건설로 학부모는 민주적 학부모회 건설로 참교육 앞당겨야

교사는 교원노조 건설로, 학생은 자주적학생회 건설로 학부모는 민주적 학부모회 건설로 참교육 앞당겨야

전남대부속서 강교도등학교의 경우 교사, 학생은 물론 재단, 학교장에게 가세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주된 3명을 포함해 노조가입교사 46명이 동맹투쟁 전교조 사무부를 벌여나가고 있다. 이 학교는 총학생회가 직접제로 선출, 설립 당시의 이념에 따른 윤바른 가치관 전담을 전교조에서 가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직접 수입을 가로지르려는 이 학교 전신은 교장은 전교조가 결성될 당시 「지금같이 말로 참교육 실현을 위한 노조를 결성할 시기이다. 어떠한 탄압이 오더라도 이념정치는 마저까지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난 8월경 전교조관련 교사정계지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노조위원은 정계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제정치를 잃게될것다 협박하고

전남대부속서 강교도등학교의 경우 교사, 학생은 물론 재단, 학교장에게 가세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주된 3명을 포함해 노조가입교사 46명이 동맹투쟁 전교조 사무부를 벌여나가고 있다. 이 학교는 총학생회가 직접제로 선출, 설립 당시의 이념에 따른 윤바른 가치관 전담을 전교조에서 가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직접 수입을 가로지르려는 이 학교 전신은 교장은 전교조가 결성될 당시 「지금같이 말로 참교육 실현을 위한 노조를 결성할 시기이다. 어떠한 탄압이 오더라도 이념정치는 마저까지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난 8월경 전교조관련 교사정계지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노조위원은 정계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제정치를 잃게될것다 협박하고

전남대부속서 강교도등학교의 경우 교사, 학생은 물론 재단, 학교장에게 가세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주된 3명을 포함해 노조가입교사 46명이 동맹투쟁 전교조 사무부를 벌여나가고 있다. 이 학교는 총학생회가 직접제로 선출, 설립 당시의 이념에 따른 윤바른 가치관 전담을 전교조에서 가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직접 수입을 가로지르려는 이 학교 전신은 교장은 전교조가 결성될 당시 「지금같이 말로 참교육 실현을 위한 노조를 결성할 시기이다. 어떠한 탄압이 오더라도 이념정치는 마저까지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난 8월경 전교조관련 교사정계지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노조위원은 정계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제정치를 잃게될것다 협박하고

전남대부속서 강교도등학교의 경우 교사, 학생은 물론 재단, 학교장에게 가세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주된 3명을 포함해 노조가입교사 46명이 동맹투쟁 전교조 사무부를 벌여나가고 있다. 이 학교는 총학생회가 직접제로 선출, 설립 당시의 이념에 따른 윤바른 가치관 전담을 전교조에서 가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직접 수입을 가로지르려는 이 학교 전신은 교장은 전교조가 결성될 당시 「지금같이 말로 참교육 실현을 위한 노조를 결성할 시기이다. 어떠한 탄압이 오더라도 이념정치는 마저까지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난 8월경 전교조관련 교사정계지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노조위원은 정계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제정치를 잃게될것다 협박하고

전남대부속서 강교도등학교의 경우 교사, 학생은 물론 재단, 학교장에게 가세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주된 3명을 포함해 노조가입교사 46명이 동맹투쟁 전교조 사무부를 벌여나가고 있다. 이 학교는 총학생회가 직접제로 선출, 설립 당시의 이념에 따른 윤바른 가치관 전담을 전교조에서 가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직접 수입을 가로지르려는 이 학교 전신은 교장은 전교조가 결성될 당시 「지금같이 말로 참교육 실현을 위한 노조를 결성할 시기이다. 어떠한 탄압이 오더라도 이념정치는 마저까지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난 8월경 전교조관련 교사정계지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노조위원은 정계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제정치를 잃게될것다 협박하고

전남대부속서 강교도등학교의 경우 교사, 학생은 물론 재단, 학교장에게 가세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주된 3명을 포함해 노조가입교사 46명이 동맹투쟁 전교조 사무부를 벌여나가고 있다. 이 학교는 총학생회가 직접제로 선출, 설립 당시의 이념에 따른 윤바른 가치관 전담을 전교조에서 가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직접 수입을 가로지르려는 이 학교 전신은 교장은 전교조가 결성될 당시 「지금같이 말로 참교육 실현을 위한 노조를 결성할 시기이다. 어떠한 탄압이 오더라도 이념정치는 마저까지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난 8월경 전교조관련 교사정계지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노조위원은 정계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제정치를 잃게될것다 협박하고



외국어교육, 최고의 자부심을 펼친다.

파고다 외국어학원

철조의 찬스... 입사, 승진, 진학, 유학, 해외지사 파견... 그러나 한 한가지, 외국어 실력 때문에 성공의 문턱에서 반반히 좌절되는 안타까움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외국어 교육은 이러한 학습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교수들이 함께 인식하지 않는 한 만족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파고다 외국어학원」의 교육 철학이기도 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학원을 찾는 수강생들에게 하루 하루 성장감을 주자」 「파고다 외국어학원」이 내걸고 있는 이러한 모토는 강의 시간 시간마다 전지하게 반영되고,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외국어 실력으로 인한 재미와 학습의욕의 상승작용을 일으켜 학습효율을 배가 시켜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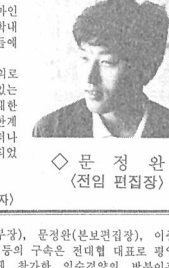
적극적인 입사, 정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시대 최고의 外國語學院 「파고다」 외국어 교육, 최고의 자부심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의 태풍이 오십시오.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

파고다외국어학원

서울 중로구 중로2가56의6호 274-4000, 274-6821 ~ 2

데스크를 맡으며



혁신의 날개짓

3018

